

연중 제29주일  
전 교 주 일

기도서 P. 459 A해

- 제1독서(이 사 45, 1. 4-6)
- 제2독서(테살전 1, 1-5b)
- 복 음(마 태 22, 15-21)

#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사 목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칼 문



## 정치 공동체와 교회

박진량 신부

옛날부터 국가권력과 교회활동 사이에는 종종 긴장관계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릇된 극단적 주장도 있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제교 황주의>(caesarpapism)와 <신권정치 주의>(theocracy)입니다. 전자는 속권의 지배자인 황제에게 교회의 절대권까지도 부여하자는 주장이고 후자는 그 반대로 신권을 가진 교회의 최고성직자에게 국가의 지배권까지도 부여하자는 주장입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특히 76번)을 통하여 여기에 관한 공식적 가르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 정치공동체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보다더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시민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사목자들과 더불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교회는 그 직무와 권능상으로 보아 결코 정치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습니다 양자(兩者)가 구별(distinction)은 되지만 서로 분리(separation)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현실을 가리키기 위하여<정교분리>라는 말보다는<정교구별>이란 말을 써야 할 것입니다. 3) 정치공동체와 교회는 자기 고유한 분야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최상권(supremacy)을 누리고 있습니다. 4) 정치공동체와 교회는, 명목은 다르지만, 둘이 다같이 동일한 인간들의 소명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환경을 고려하여 서로 건전한 협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선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5)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자기의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직무를 아무 장애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구원이요 구할 경우에는 정치질서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며 이경우에 교회는 복음과 모든 사람의 선익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두 또 그것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철저한 교회의식과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보다 나은 정치 사회가 이루어 지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며 몸으로 활동 합시다!



## 와서 보시오!

전교주일인 오늘, 한국 천주교회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의 뜻깊은 행사를 갖는다. 「그리스도를 우리 동네에」 모시자는 지포아래 한 해를 보냈는지를 반성해야 할 순간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와서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되돌아 보아야 하겠다. 진실로 150주년을 기뻐해야 할 일은 30만 하느님 백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와서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다.

제사문제로 피를 흘렸던 어제였는데, 이제는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서간을 미사중 독서 시간에 듣게된 오늘이다. 놀라운 전례의 토착화이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지난 70년대처럼 한국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받아드리며 사는 일이다. 70년대의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 동네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몸부림쳤었다. 그때에 선의의 시민들은 교회에 와서 기뻐거렸다. 그들은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그때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먼 나라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한국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살았던 참 토착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복음의 정신에 미치지 못할 때 선포의 소리는 울리는 팽과리의 소음에 불과할 것이다. 전교의 참 의미는 복음정신대로 사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아직 교회밖에 있는 형제들은 와서 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맞으며 참으로 음미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이다. 십자가는 목거리처럼 약세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에게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기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빛나는 훈장이요.

## 숲 정 이 산 책



축하합니다

# 조선 교구 150 년

신도들의 힘에 의해 세워진 교회, 온갖 시련과 박해를 이겨 나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피와 땀으로 증거했던 우리 교회,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무수한 신도들의 노력으로 다져진 우리 한국 천주교회, 그리스도의 평화를 온 누리에 증거하고, 겨레에게 참다운 믿음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주어야 할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절어온 발자취를 보고드립니다.

**교리의 연구** : 신앙의 선조들이 모이며 천주교의 교리를 진지하게 토론하였습니다. (1779년) 권철신 정약중, 이벽과 같은 신앙의 선조들은 천주교 교리연구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겨레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보다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 천주교를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창설** : 교리연구회 회원들은 북경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 천주교를 더욱 자세히 알아 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이승훈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 교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때 모이며 집회를 가졌고 기도를 드렸습니다(1784).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창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의 도움없이 신도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재하는 하느님께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운 오직 하나의 예를 우리 겨레에게 허락하시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창립됨으로써 교리를 연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실천해 보려는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박해의 첫머리** : 교회가 세워진 다음해부터 조정에서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던 김범우는 관가에 잡혀가 배를 맞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1785). 그리하여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다 목숨을 바친 첫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얻게 된 기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유박해** : 1791년, 윤지충과 권상연이 죽은 후,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었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희망과, 이들의 모임을 두려워한 조정에서는 박해를 일으키어 배교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주문모 신부와 수백명의 신도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였고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신도들 중에는 정약중과 유항검과 같은 지도적 신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누갈다도 이때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1801)

**살아나는 신앙** : 신유박해의 모진 열풍이 지나가고 10여년이 흘렀습니다. 흩어졌던 신도들은 다시 모이며 교회의 재건을 꾀하게 되었고 신앙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북경의 주교에게 선교사를 보내주도록 간청하였고 멀리 로마로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했으며 주교님의 파견을 간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도들의 노력 때문에

조선교구는 설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순교자 정약중의 아들인 정하상은 목자없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의 재건에 투신하였습니다.

**교구설정** : 조선교구가 설정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땅에 세워진지 50여년이 지나 우리는 비로소 독립된 교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땅에 신앙을 전파하고 이를 퍼나가기 위해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증거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교구가 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구의 설정으로 세계 교회 안에서 몇몇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설정된 교구를 위하여 빠리 외방 전교회가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조선교구의 첫 주교로 서품되어 조선에 들어가기로 고대하다가 이역 땅에서 목숨을 바친 소 부뤼기에르(Brugiere)주교, 순교복자 범(Imbert)주교,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선교사들은 조선교구의 자랑스런 일꾼이었습니다. 정하상과 유진길 그리고 그밖의 수많은 형제들이 기해박해(1839)때 순교하였고, 이들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범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성직자** : 김대진 안드레아가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1845). 김대진 신부는 우리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서품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는 겨레를 위한 봉사의 길에 기꺼이 들어섰으며, 착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김대진 안드레아 신부의 순교는 진리에 대한 우리 겨레의 사랑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진 신부의 뒤를 이어 최양업 신부도 서품되었습니다.

**병인박해** : 이 박해는 그 이전의 어떠한 박해보다도 혹독했고 10여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신도들은 이 박해의 와중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잘리어 죽었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겨울 강추위에 찬물을 끼얹어 얼려 죽이기도 하였으며, 집에 가두어 불을 질러 산 채로 태워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수시명씩 엮어서 구멍이를 파고 생매장도 당하였습니다(1866).

그들은 왜 이와같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동네에 모시려 했던 까닭입니다. 참다운 진리를 선포해 주려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길을 택한 1만여명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가장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의미일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 순교자는 인간의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는 전선에서 산화한 전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값진 죽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100여년도 신앙의 자유를 단격하고 참다운 행복을 구가하는 시기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 겨레는 독립을 빼앗겼고, 해방된 이후에도 분단의 슬픔을 맛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겨레와 함께 숨을 쉬고, 겨레 가운데 뿌리박은 신앙이야야 했기에, 우리 교회와 조선교구는 결코 변할 날이 없었습니다. (1880년대) <3면에 계속>

< 2면에서 계속 >

**침략에 맞서서 :**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그러져 가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스스로를 번제로 바쳤던 것과도 같이, 민족의 국가를 갖는다는 또 다른 권리의 확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구에서는 각처에 학교를 세워 겨레의 성장을 도우려 했습니다. 신문을 만들어 “거짓 근대화와 참다운 근대화를 구별지으려” 하였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침략의 주모자를 응징하고 십자성호를 국고나서 “대한만세”를 불렀던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던 이들의 노력은 이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1890~1910년).

**슬픈 겨레와 함께 :**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 겨레가 이민족의 노예로 신고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의 교회는 노예의 아픔에 동참하여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밀거름되어 어두웠던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교구는 그 이름을 서울교구로 바꾸면서 순교의 거룩한 전통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그밖의 많은 지역에 교구가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순교의 전통은 하나님의 백성들 뒷줄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던 이 시기, 우리 교회는 침략자의 채찍아래 놓여있는 겨레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픔 중에서도 우리에게만 처음으로 한국인 주교를 모실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1942년).

**분단의 슬픔 :** 그러나 해방은 우리에게 분단의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슬픔은 6. 25사변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도 북녘에는 침묵을 강요당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국토의 분단은 인간 내부의 분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마저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침묵의 교회에 신앙의 자유가 깃들기를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분단시킨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그리스도의 정의가 깃든 사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룩된 사회를 위해 우리는 모두가 작은 힘을 바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구가 걸어온 지나간 15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지난날 우리의 허물을 겸손되어 뉘우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동네에 모시려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우리 온 겨레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려는데에 우리의 힘을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길만이 순교자의 뜻을 받드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구가 걸어온 길이요, 우리가 나아가길 것입니다. (서울 보교서에서 발췌)

**“성령쇄신 봉사자 교육을 위한 세미나”**

—신학적·성서적 바탕으로—

성령충만의 생활을 깊이 갈구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케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브니엘의 야곱처럼 우리도 말씀과 씨름하면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드러냅시다.

지도 : 김정원 신부, 일시 : 1981년 10월 26일~28일(26일 오후 3시까지 모임)

장소 : 전주 노충동 천주교회(숙식), 인원 : 50~60명, 회비 : 15,000원

신청 : 520 전주시 중노충동 2가 361-3 노충동 천주교회 전화 ② 7032

기타 : 매월 정기적으로 있음(성령쇄신지 참조) 성서·필기도구 필히 지참

**전주 베소라 성령쇄신 봉사회**

(축) 영명

김준호(십자가의 성바로)신부님 : 10월 19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요심이(428) 김병오**

식탄국장이란자는 불량연탄봐주고 거액의노물을 받아잡수시고

국장을 감독할나라는 입만열면 탄값을 올린다고

서민들만 불쌍하군

비나이다.비나이다 제발 서민을위한...

**직 원 모 집**

1. 모집부문 : 사무직 여자 ○명
  2. 자격 : ①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② 1981년 11월 1일 현재 만 18세이상 22세미만 미혼여성
  3.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서 1통 ④ 자격증 사본  
⑤ 본당신부님 추천서 1통
  4. 접수기간 : 1981. 10. 12~1981. 10. 24 오후 1시까지
  5. 접수처 : 본 조합 사무실 전화 ②0498(구성모병원3층)
  6. 시험과목 : 일반상식, 면접
  7. 시험일시 : 1981. 10. 27 오전 10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981. 10.
- 전북 의료 협동조합**  
이사장 김 영 일

□ 생화 · 각종화분 · 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백) · 이 마리아

털실·매듭·스킬·리플포인트·완구  
동양매듭·양초공예 수강합니다

**데레사 수예점**

많이 애용해 주세요  
서 데레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1  
(홍빈관 앞)  
☎ ⑤ 5081

주단 · 포목(훈수 · 회갑웃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펫지 도매상

**서 울 주 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경축!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신앙대회

1. 교구 예산안 심의: 10월 26일 오전 10시 주교관 회의실  
참가대상(참사회원, 각 지역대표 회장, 평협 및 수녀연 대표)
2. 사제단 가을소풍: 10월 27일 오전 9시30분 교구청 집합
3. 5지구 청년연합회 임원개편: 회장-김요한(상관), 부회장-이도미니카(남원), 총무-안안나(상관)

(중앙)

전화 ③3651번  
3874번

주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정종민  
보좌 신부 김병구  
사도 회장 김병구

1. 성모회 월례회: 10월 성모회 월례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착한 사마리아인회: 10월 21일(수) 오후 2시 회합실
3. 자모회: 10월 24일(토) 오전 10시 회합실
4. 조선교구 150주년 행사 참가: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록 기도중에 기억합니다
5. 고등학생 추계 체육대회: 10월 25일(일) 오전 9시
6. 청년 신심단체 체육대회: 11월 1일 10시
7. 병자방문: 20일(화) 환자모시고 계신분 사무실에 신청 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536, 596원

(노송동)

전화 ③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베소라 성서 강의: 20일(화) 저녁 7시30분~9시30분 까지 주제: 대사제들의 음모-수난서곡-마르코14: 1-2, 마테오 26: 1-5, 루가22: 1-2절의 중심으로
2. 수녀님들의 베소라성서 특강: 매주(월) 오후 2시~4시 까지
3.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고린토전서와 후서 전체
4. 유아 영세식: 24일(토) 오전 10시 30분, 대부모님을 모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5.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납하여 분당운영에 협조합니다
6. 성령 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 까지, 직장인들은 매주(금) 저녁 7시 30분부터

□ 지난주 봉헌금: 271, 771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서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모회 월례회: 25일로 연기
2. 주일학교 어린이: 많이 보내주세요 미사-3시, 교리-2시
3. 반석회 임원개편: 회장-한인수(가브리엘) 총무-최관수(시몬), 재무-유일봉(도민교) 1년동안 수고하시겠습니다
4. 영세자 사진 찾아가세요: 단체사진 및 개인사진
5. 봉헌봉투 확인합니다 11월말까지 약속하신 봉헌금 완납을 부탁드립니다
6. 각 분과별 1년평가 하시고 82년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91, 290원

(복자)

전화 ③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각분과(신심단체)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사도회에 제출 바랍니다
  2. 견진자 교리: 10월 26일~11월 7일 주일제의 저녁 미사후
  3. 젊음이의 광장: 24일(토) 저녁 7시 30분 강당에서, 대상-중고생·청년
  4. 다음주 전례: 안경례, 독서-① 임환전 ② 장마리아
- 지난주 봉헌금: 307, 731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서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
  3.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6시, 저녁미사-7시
  4. 가정방문: 20일·22일·23일-5만
  5. 예비자 교리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매주일요일 3시 어린이
  6. 견진교리: 10월 26일~31일까지(저녁미사 후)
  7. 교무금 완납: 미납하신 분은 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조동근 ②이정빈
- 지난주 봉헌금: 192, 950원 교무금: 115, 1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수·유③9567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주일과 같이 공소예절 있습니다 시간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2. 요안회 월례회: 10월 25일
  3. 중·교생 성가연습: 매일 오후 6시 있음
  4. 복사단 모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현 복사단원과 복사단에 가입 희망하시는 학생은 참석 바랍니다
  5.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주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3시·밤 7시30분
  6.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귀례  
독서-①김종환 ②남상용, 기도-이철수
- 지난주 봉헌금: 258, 66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열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150주년 기념행사: 여의도 광장에서 오전 10시
  2. 사무실 전화가 개통되었습니다 야간 ⑥ 6679(사무장 배)
  3. 군중후원회 많이 가입합니다; 가입서는 사무실로
  4.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25일) 오후 1시30분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이신홍 ②박순기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백종홍 ②박도식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변해식 ②김동수
  6. 축! 결혼: 10월 19일 12시  
신랑-주영승(헨리교), 신부-김현숙(베로니카)
- 지난주 봉헌금: 489, 42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축!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신앙대회: 본당 90명 참가 ※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 견진성사: 11월 8일 10시 ※ 신청 바람
  3. 로사리오의 밤 행사: 10월 31일 저녁 7시30분  
-단체 및 개인별 꽃다발 준비 바람
  4. 성모회: 다음주 금요일(30일)
  5. 오늘 오후 3시미사 없습니다
  6. 예비신자 교리안내: 주일-10시미사 후·저녁미사후 목요일-10시·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36, 490원 교무금: 144, 500원